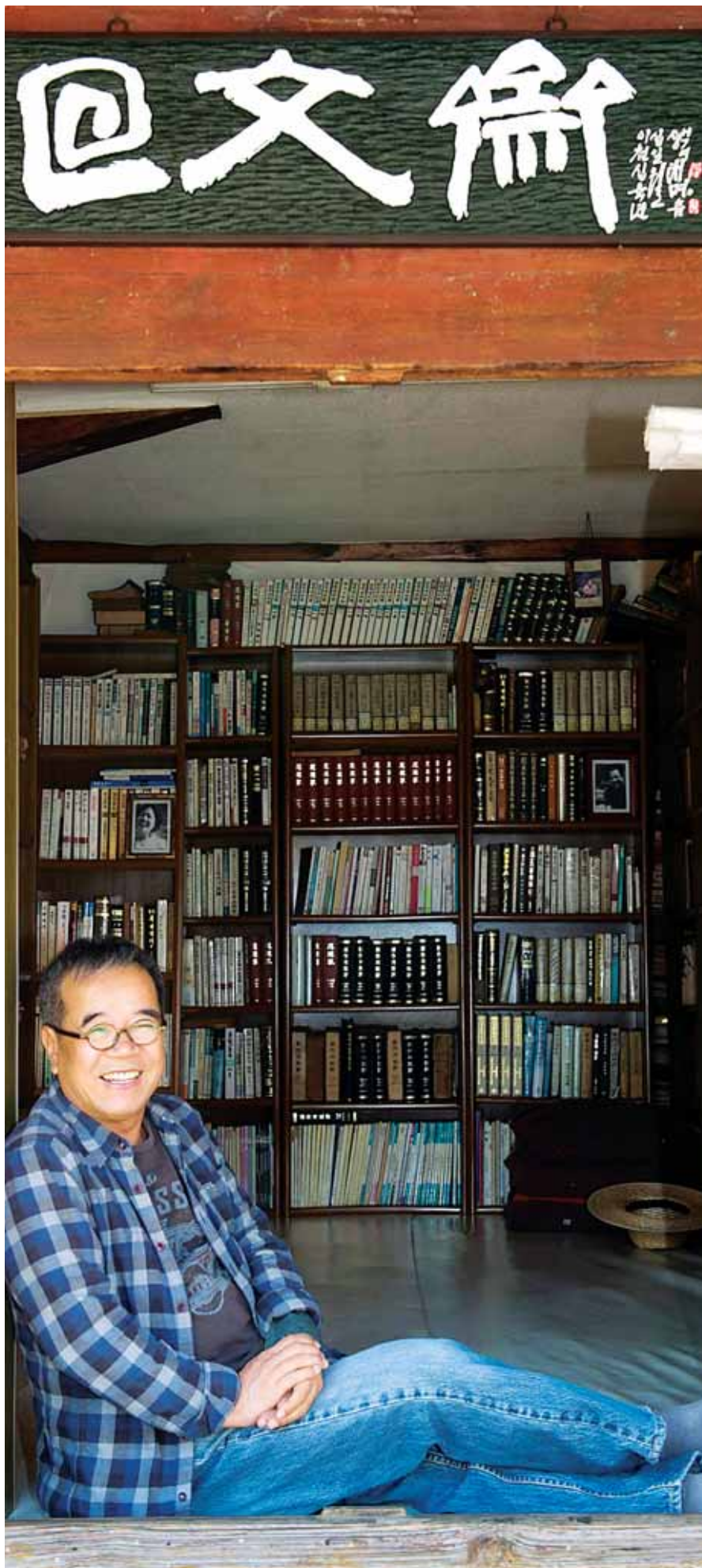


“한편의 시를 이해하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

김성치유 필사시집 '어쩌면 별들이...' 8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오른 **섬진강 시인 김용택**



8년간의 전주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봄 고향인 전북 임실군 진매마을로 돌아온 김용택 시인은 '회문재'라는 이름을 단 한옥집에서 책을 읽고 시를 쓴다. 올해 등단 35년을 맞은 그는 '시를 필사해 보는 건 시인의 마음에 닿는 것'이라고 말한다.

“꽃사는 것도 아니고, 굵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를 필사(筆寫)해 보면 시인의 마음에 닿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 책이 많이 나간 거죠.”

지난 2015년 봄,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69) 시인은 부인 이은영씨와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대화에서 필사시집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렇게 해서 엮은 책이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였다. 시인이 엄선한 101편과 독자들이 뽑은 김용택 시인의 시 10편 등 모두 111편의 시가 실렸다. 단순히 좋은 시 선집이 아니라 베껴 쓸 수 있는 여백을 둔 독특한 편집의 '김성치유 필사시집'이었다.

출간 직후 필사 붐이 일었고, 책 역시 꾸준히 팔렸다. 그런데 책이 나온 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화제가 올랐다. tvN 드라마 '도깨비' 4화에서 이 책이 PPL(간접광고)로 잠깐 등장했다. 그런데 전파를 탄 이튿날부터 8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고수할 정도로 독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시인도, 출판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극중에서 낭송된 시는 김인옥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었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시인은 지난해 봄, 8년간의 전주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섬진강이 지척인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산리 진매마을이다. 그는 지난 2008년, 38년간 몸담은 교직에서 퇴직 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전주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다 지역예술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 옛집을 헐지 않고 그 옆에 살림집과 현대적인 감각의 서재를 짓고 귀향했다.

시인은 4만 한옥인 옛집 오른쪽 귀퉁이 서재에 '회문재'(回文齋)란 편액(扁額)을 걸었다. '글이 돌아오는 집'이란 의미다. 민체(民體)를 쓰시는 효봉 여태명 서재가의 글씨를 새겼다.

“친구들이 '관란헌(觀瀾軒=물결을 바라보는 집)'이라고 집자(集字)해서 줬어요. 그렇지만 (내가) 회문산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고, 그 산 밑에서 38년간 선생을 했잖아요.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상의해서 '회문재'로 바꿨죠.”

동쪽을 향한 회문재 방문을 열고 내다 보면 섬진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쪽마루 가까이 앉은뱅이 책상을 내놓고 강을 마주보며 책을 읽고, 많은 시를 썼던 창작의 산실이다.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지난해 9월에 12번째 시집 '울고 들어온 너에게'를 선보였다.



드라마 '도깨비' 깜짝 등장
출간 1년 6개월 지난 시집 독자들 열띤 호응으로 화제

작년 봄 전주생활 청산 귀향
서재 '회문재' 짓고 안착

12번째 시집 '울고...' 펴내

등단 35년, 고향 됐지만

새벽 3시 기상 '청년'의 삶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영덩이 밑으로 두 손 넣고 영덩이를 들었다 놔다 되찾거라 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면 나는 광광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울고 들어온 너에게’ 전문) 힘겨운 세상살이를 하며 지치고, 상처받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다.

앞서 시인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좋은 시를 엄선해 엮은 '시가 내게로 왔다' 5권을 펴냈다. 좋은 시를 골라, 짤막하지만 인상적인 해설을 붙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인은 1948년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1968년 순창 농림고를 졸업한 후 오리를 키우다 실패했다. 한 달간 서울로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 교사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그는 1970년 교사를 시작해 모교인 덕치초등학교와 미암분교 등지에서 38년간 초

등학교를 가르쳤다. 교과 지도 외에 방과후 학습으로 글쓰기를 강조해 학생들의 동시집을 내주기도 했다.

초급교사 시절, 그는 인문학의 세계에 새로이 눈을 떴다. 학교로 찾아온 책장사에게서 도스토옙스키 전집, 이어령 전집, 세계문학사 등 많은 책을 월부로 샀다. 박봉이라 외상으로 책을 샀다. 또 완행버스로 1시간50분 걸리는 전주로 나가 신간과 헌책을 구입해왔다.

시인은 교사가 되기 이전까지 교과서의 예는 책다른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 퇴근 후 밤새워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책을 읽다보니 자연 사회와 역사에 눈을 뜨게 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게 됐다. 문학을 빠져 14년을 홀로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가 내게로 왔다. 저 깊은 산속에서 누가 날 불렀던지. 내 발등을 밝혀주던 그 환한 목소리, 시였어.” 파블로 네루다의 '시' 해설은 시인의 자화상이다.

1982년, 창비(창작과 비평)에서 낸 '21인 신작시집'에 그의 연작시 '섬진강'의 8편이 실리며 등단했다. 그의 시는 파란을 일으켰다. 신경림 시인이 '농무'에서 농촌을 지식인 시각에서 바라봤다면 그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생한 언어와 정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35살에 문단에 나온 그는 어느새 고희가 됐다. 등단 후 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시의 경향은 조금씩 변화했다. 초기 피폐한 농촌의 실상과 현대사의 아픔을 직시하다가 자연에서 깨닫는 진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시는 삶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의 이야기였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충실한 표현이기도 했다. 시인은 시 '오래 한 생각'에서 “산같이 온순하고/ 물같이 선하고/ 바람같이 쉬운 시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어머니 박덕성(89)씨는 시인의 삶, 그리고 시의 스승이다. “사람이 그러면 쓴다”하는 말씀에 사회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함축돼 있다.

시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전날 일기를 쓰고, 써놓았던 시를 끄집어내 다시 읽는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1시간 30분~2시간 동안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검색한다. 아침운동으로 틈틈이 섬진강을 따라 걷기도 한다.

시인은 “나무들은 사랑이 정면”이라고 말한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나무는 보는 쪽이 정면이에요. 우리 사회는 늘 정면이 하나였어요. 나무는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한쪽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시(斜視)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이 돼 있어요.”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문지행 문화행사
루브르 박물관 드농관
라파엘로 작품 등 감상

19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라파엘로 작 '아름다운 정원사'

시민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 22번째 문화예술기획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추구하는 시민강좌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을 살펴보는 두번째 시간으로 드농관에 전시된 라파엘로 산티와 티치아노 베첼리오, 아르침볼도 등의 작품을 감상한다. 라파엘로로 대표되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미술과 티치아노를 중심으로 하는 베네치아의 미술을 비교 감상하며 동시대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심옥숙 대표가 맡는다. 참가비 무료.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 10:00 ~ 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연선 18)

아프리카 소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을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